

# Blustar, 포스코 제치고 Elkem 인수

## 노르웨이 실리콘기업 20억달러에 흡수 ... 태양광 기술 잠재성이 메리트

중국 Blustar가 한국의 포스코 등을 제치고 실리콘(Silicone) 생산기업 Elkem을 인수한다.

중국 국영 화학기업인 China National Blustar가 노르웨이의 실리콘 생산기업 Elkem을 20억달러에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Elkem은 에너지부문인 Elkem Energy를 모기업에 이관하는 것 이외에는 사업 전반을 Blustar에 넘기게 된다. 현금 매각액 20억달러는 주변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업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도 태양광 패널 제작에 쓰이는 실리콘 생산기업인 Elkem의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Elkem의 모기업은 소비재와 알루미늄 부문에 집중하고 태양광 분야를 축소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Blustar는 중국 ChinaChem과 미국 사모펀드기업 블랙스톤이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Elkem의 태양열 관련 신기술의 거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lustar는 2007년 프랑스 Rhodia의 실리콘 전문 계열사를 사들이는 등 2006년 이후 인수합병에 열을 올려왔으며 2010년 매출액은 60억달러를 넘어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2>